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Table with 3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06:00 to 10:20.

EBS플러스1

Table with 3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from 00:00 to 10:50.

EBS플러스2

Table with 3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from 07:00 to 15:4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4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Age, Fortune, and Count. Includes a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notice at the bottom.

“웃음 폭탄 드릴게요, 느낌 아니까~”

‘개콘’ 인기 코너 ‘뽀뽀테이먼트’ 4인방



〈왼쪽부터 박은영·김원호·김지민·김민경〉

의자에 앉아 도도하게 대본을 넘기던 톱스타 김지민은 담배를 피우는 장면에 ‘흠칫’ 놀란다. 그러나 이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담배 피우는) 이젠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한 마디에 관객과 시청자는 배꼽이 빠진다.

그를 비롯해 발란 동동 구르는 소속사 사장 김원호, 스타 소지섭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배우 김민경, ‘잠시만요~ 보라 언니 xx 하실게요’라고 까랑까랑 외치는 스타 일리스트 박은영 등은 10여 분 길이의 코너 내내 ‘웃음 폭탄’을 터뜨린다.

바로 KBS 2TV ‘개콘서프’ 인기 코너 ‘뽀뽀테이먼트’다. 지난 25일 이 코너의 시청률은 17.5%(닐슨 코리아·전국 기준)에 달했다.

28일 ‘뽀뽀테이먼트’에 출연 중인 김지민·김원호·김민경·박은영을 만났다.

“제가 휴대전화 알람을 (박)은영의 ‘잠시만요~’로 해놨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아침에 아내에게 혼이 날 정도였죠. 하하”(김원호)

코너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유행어도 “느낌 아니까~” ‘잠시만요~’ 등 여러 개가 터졌다. 유행어에 민감한 동료 개그맨들조차 이를 휴대전화 벨소리로 설정해 놓았을 정도다. CF 문의로 이어져 김지민은 이미 2개의 광고를 계약했다.

“저도 왜 우리 코너가 인기 있을까 꿈꿔가 생각해보았어요. 사실 연예인 뒷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다들 재미있어하잖아요? 연예 산업에 다룬 개그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한 적은 없었죠.”(김지민)

“연예인은 좋은 모습만 대중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

을 거라고 상상을 하죠. 그 ‘뒷모습’을 대중이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궁금하거든요.”(김민경)

사실 ‘뽀뽀테이먼트’는 하나가 아닌 여러 코너가 합쳐진 것. 신보라와 박은영 등은 다른 코너를 기획했지만 연예인을 소재로 다룬다는 ‘공통분모’ 때문에 힘을 합치게 됐다. 또 할머니가 등장하는 코너를 짜던 김준호는 노(老) 배우 캐릭터로 합류했다.

‘뽀뽀테이먼트’가 발광한 최고의 보석은 바로 KBS 27기 공채 개그우먼 박은영이다. 그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끈 ‘용감한 녀석들’ 코너에서 잠깐 등장해 결별을 선언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용감한 녀석들’을 비롯해 ‘황해’, ‘버티고’ 등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단역을 맡던 그는 ‘잠시만요~ 보라 언니 xx하고 가실게요’란 유행어를 히트시키며 대중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사실 2008년 SBS 공채 10기 출신으로 개그계에 몸담은 지 5년이 지났다. 2010년 SBS에서 ‘웃찾사’가 폐지되면서 설 무대를 잃자 몇 차례 도전 끝에 지난해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했다.

“뽀뽀테이먼트”를 통해 비로소 스포트

라이트 한가운데 서게 됐지만, 요즘도 버스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타고 다닌다.

김민경은 ‘씨스타 29’ 코너를 위해 ‘뽀뽀테이먼트’를 나간 오나미를 대신해 합류했다. 방송 초반 엇갈린 반응에 마고생도 겪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개그 포인트가 터지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이전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평도 받은 것.

김민경은 “지금까지 해 본 역할 가운데 이 캐릭터가 가장 힘들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웃’처럼 보는 분들도 어색하지 않잖아 싶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시청자도 더 열린 마음으로 나를 봐주는 것 같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뽀뽀테이먼트’는 화려한 조영 뒤 감춰진 연예계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지만, 특정한 사례를 참고해 코너를 꾸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코너가 상승 기류를 타면서 주변에서 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김지민은 “때때로 과거 2년 반 동안의 무명 시절을 떠올린다”며 “일정이 바빠 잠을 자지 못해도 행복하다. 옛날에 너무나 힘들었기에 절대 여기서 추락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좌충우돌 처가살이... KBS 2TV ‘왕가네 식구들’

‘처월드’·‘캥거루 족’ 등 현대 가족 형태 반영

‘최고의 이순신’이 떠난 자리를 이번에는 왠지 절절한 가족들이 채운다.

KBS 2TV 주말극이 여성 주인공의 성장담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 가족의 모습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것도 ‘소문난 칠공주’, ‘수상한 삼형제’ 등의 히트작에서 호흡을 맞춘 문영남 작가와 진형욱 PD가 의기투합했다.

28일 열린 ‘왕가네 식구들’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진형욱 PD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역사사지의 메시지가 드라마의 가장 큰 주제”라고 소개했다. 진 PD는 “처월드”의 시련을 겪는 사위들

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드라마에 담고 싶다”고 설명했다.

50부작으로 예정된 ‘왕가네 식구들’은 왕봉(장응분)과 이양금(김혜숙) 부부의 다섯 자녀와 세 사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 안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다.

특히 ‘처월드’에서 생활하는 사위들을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늙은 부모에게 의지하는 ‘연어족’,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 등 현재 한국 사회 다양한 가족 문제를 돌아볼 계획이다. /연합뉴스



〈장응·김혜숙〉

TV 하이라이트

갈리진 두 택시 인생



대한민국화해프로젝트 ‘용서’(EBS 밤 9시 50분) = ‘배신과 비난’의 5년, 택시대와 총장과 택시기사’편.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새치기 운전, 승객 납치, 살인 사건... 시민들이 인식하는 택시기사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택시기사가 바다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아닌 ‘다른 직업’이란 걸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비전택시대학’ 총장 정태성과 ‘서울개인택시협동조합’ 이사 최장영.

대학 동기로 오래 전부터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던 두 사람은 5년 전 의기투합하여 ‘서울개인택시협동조합’을 만들지만 정태성은 이렇다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정태성은 ‘비전택시대학’을 만들고 스타강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최장영은 정태성에게 이응당했다 배신감을 지울수가 없다.

기상천외한 놀이 대결



스토리쇼 화수분(MBC 밤 11시20분) = MBC 파일럿 프로그램 ‘스토리쇼 화수분’이 정규 예능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첫 방송을 한다. 화수분은 드라마와 뉴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김갑수와 서경석, 김성주, 정준하가 MC로 나서고 첫 회에서는 샘 해밍턴과 미르, 박형식 등이 앵커로 함께 출연한다.

게스트로 출연하는 그룹 2AM과 엠블랙은 ‘향기도 검색이 되나요’란 주제의 시청자 제보를 받은 신종 놀이를 몸소 체험하면서 기상천외한 대결을 선보인다. 해당 신종놀이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이날 스튜디오에서 공개된다. 신종놀이에 관한 에피소드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2AM 조권, 진운, 엠블랙 미르, 승호는 그동안의 이미지를 깨고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다.

고랭지 채소밭의 보물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30분) = 해발 1000미터의 진수성찬 ‘고랭지 밥상’. 해발 1303m의 매봉산 정상엔 40만 평에 달하는 배추밭이 있다. 큰 일고차로 생기는 이슬과 한낮의 온기를 머금은 돌은 매봉산 배추를 최질의 상태에서 키운다. 이정만씨네는 그 매봉산 정상에 사는 유일한 가족이다. 배추 농사꾼이면서 화가이자 문학가인 이정만씨. 부모의 반대 속에도 매봉산에 들어온 이정만씨 가족의 밥상을 만나본다.

해발 1200m 펼쳐진 옥백마지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랭지 채소밭이다. 이곳이 고랭지 채소밭으로 개간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옥백마지기가 개간되면 시절부터 이곳에서 평생 일해 온 지순욱 할머니는 고랭지의 산 증인이다. 그녀의 거친 손은 그 역사를 말한다. 그녀가 일군 땅에서 이제 그녀의 아들이 새로운 특용작물을 재배한다.